

남구, 남북교류협력사업 첫발 댄다

사회 각계 위원 21명 참석
협력위원회 첫번째 회의
기금 운용 계획안 등 의결
수영대회 공동응원 등 추진



지난 14일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북 공동응원단 유치 등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광주 남구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종교계 인사, 남구의회 전·현직 의원, 대학 교수, 사회단체 관계자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남구청에서 제시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자문 및 남북 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남구는 이날 나온 계획안에 따라 내년부터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매년 5000만원을 구 출연금으로 마련해 총 2

억5000만원의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도 확보해 남북 교류협력기금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남북 교류협력기금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북 공동응원단 운영과 지역 초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통일 지도자 캠프 및 통일 아카데미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의미 부여를 위한 남북교류 상징로(路) 조성사업과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 만큼 내년부터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절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이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남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정부와 광주시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남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구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산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장관상

13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연대 워크숍에서 '2018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평가' 종합평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가 민·관 참여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전

국 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1~10월 동안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실적에 대해 8개 점검지표로 점검했다.

광산구는 실무사례협의회로 안전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7개 초등학교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학교 주변 안전위험요소를 개선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북구 우수기관에 선정

광주시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계성을 갖춰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기반조성, 프로세스 및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전국 15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북구는 규제발굴 T/F팀 운영,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주민·기업 대상 규제혁신 수요 파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간 점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현장 밀착형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생활불편사항 해소소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규제개혁 추진에 나선 기관장의 의지도 높이 평가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민선 7기 소통·복지·안전 분야 36건 수상

정책대상·긴급구조 대통령상
포상금 13억원 받아

광주시는 소통, 복지, 안전 등 분야에서 36건을 수상하고 포상금 13억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혁신, 소통, 청렴을 시정 가치로 삼아 난제를 잇달아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지난 16년간 논쟁 대상이던 도시철도 건설 해법을 제시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민과 소통으로 새로운 협치 성공 모델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에서 제7회 광역단체 부문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을 알리는 노력으로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주관한 2018 대한민국의 소셜미디어 관광마케팅 분야 대상, 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에서 수여한 2018 올해의 SNS 공공부문 대상도 받았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위기 가구 발굴단 운영,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추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광

역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대상을 뒀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혔고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책 평가에서도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는 2018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시작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시도 평가 1위에 따른 대통령상, 119 소방정책 퍼포먼스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구 입암·황산마을 광주 최초 에너지자립마을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획득

광주시 남구 송암동 입암마을과 이장동 황산마을이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에너지 자립마을에 선정됐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2018년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인증 평가위원회를 열어 전국 18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해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인증

을 끝마쳤다.

이번 평가에서 입암마을과 황산마을은 에너지 자립률이 5등급 수준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입암마을을 대상으로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63kW 보급에 힘써 왔으며, 평가에서 입암마을의 에너지 자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마을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빌리지 및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63kW 보급이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에너지 자립률이 2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시내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광주시 내년 130여대 추가 설치

광주시는 내년에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BIT) 130여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전체 버스정류장 절반에 해당하는 1155곳에 도착 안내 단말기를 설치한다.

연간 버스 이용객 수가 2만명 이상인 버스정류장 대부분에 설치하게 된다.

광주시는 단말기에 미세먼지 상태, 현재 온도 등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현재 단말기가 있는 버스정류장은 625곳으로 설치율은 27%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위생매립장 활용 아이디어 5개 작품 선정

'캠핑장·공영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레저단지' '부지(1인용 썰매) 체험장' '다양한 야생생물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공원' 등 5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동구는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방안 주민 아이디어 공모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구 남문로 418-5(소태동) 일원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된 이번 공모는 지난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에서 모두 94개 아이디어가 접수될 만큼 관심을 모았다.

동구는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1차 개별서류 심사와 구중추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꾸려서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

사위원회를 통해 5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캠핑장·육외공원·산책길·생태연못·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포함된 복합레저단지를 제안한 정진호(광주시 서구)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환경학습공원을 제안한 양성현(동구)씨가 이름을 올렸다.

또 복합체험공원을 제안한 최시화(서구)씨, 루지체험장을 제안한 김기범(부산)씨, 도심농업·생태공원을 제안한 김중만(북구)씨는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동구는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시상금(대상 500만·우수 200만·장려 1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며, 내년도 TF팀을 구성해 당선작에 대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18일 채사장 작가 초청 아카데미

광주시 서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 91회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서구 아카데미는 최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로 인기를 얻고 있는 채사장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채 작가는 이번 강의에서 문화·종교·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예정이다.

'지적대회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시민의 교양' '열한 계단'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등을 펴낸 채 작가는 팟캐스트 '지대넓얕', EBS라디오 '토요일인문학 콘서트', tvN '어쩌다 어른' 등 방송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